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1면	사흘 만에 5만명... 강원의 숲에 흠뻑 취하다	1
江原日報	02면	사흘 만에 5만명... 강원의 숲에 흠뻑 취하다	1
江原日報	02면	눈앞에서 펼쳐진 숲의 과거와 미래... '푸른지구관' 인기 폭...	2
강원도민일보	22면	기다림으로 포착한 강원의 희로애락	3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정호 도의원 "속초 크루즈터미널 복합터미널 전환해야"	4
江原日報	온라인	강정호 도의원 "속초크루즈터미널 활성화해 동북아 항로 ...	5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정호 의원,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해야"	6
춘천MBC		강원도의원 조례 발의 '전국 꼴찌'[1/3]	7
KBS 춘천	온라인	강원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범위 확대"	9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교육청, 3개 학교 신설 계획 확정...도의회 안건 제출	9
江原日報	10면	홍천군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10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 전통 삼굿 명맥잇기 올해도 풍성	10
江原日報	12면	'어촌 심언광 선생' 선양사업 확대 본격화	11
江原日報	16면	화천군수배 파크골프대회	11
江原日報	15면	천만송이 꽃길 수놓은 1천여 인파	12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소동산 봉수대' 도내 첫 불 밝혔다	13
강원도민일보	04면	'EATOF DAY in 강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글로벌 붐업	13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화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	14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홍천군이장연합회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개...	14
강원종합뉴		[강원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드론 팀레이싱...	1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제9회 평창군 평생학습축제 어울림 한마당 열려	1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엄윤순 농림수산위 부위원...	20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최상기(왼쪽) 인제군수·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	20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20
강원도민일보	06면	도 '명절 물가·시장 현안' 직접 점검 나선다	21
江原日報	01면	'부실·허위' 서류 받고 플라이강원에 20억 준 양양군	22
江原日報	10면	부지 검토만 1년째... 춘천 대관람차 헛바퀴	22

강원도민일보	05면	"차레 지낼 곳도 없어" 추석 앞둔 강릉산불 이재민 한숨	23
강원도민일보	06면	'못난이' 상품의 역습... 고물가 속 강원 농산물 마케팅 첨병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술실 CCTV 영상' 철저 관리를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AI 반도체산업 주도권 잡아야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물가 치솟는데 쌀값만 하락, 근본 대책 시급하다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국회, 말끝마다 민생 외치지만 무슨 일 하고 있나	27

2023 09 25 ()

江原日報

01

사흘 만에 5만명... 강원의 숲에 흠뻑 취하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Gangwon Forestry Exhibition

개막 첫 주말부터 '인산인해'
추석 연휴 등 흥행 돌풍 예고
총 132만명 관람객 유치 목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지난 22일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대에서 다음 달 22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솔방울전망대와 개막식 모습. 고성=신세희기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지난 22일 개막 이후 첫 주말 5만3,000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2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일인 22일 1만5,184명, 23일 1만8,429명, 24일 1만9,686명 등 총 5만3,299명의 관람객이 엑스포장을 찾았다.

사흘간 관람객이 5만명을 돌파하며 도와 조직위는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이번 주부터 6일간의 추석 연휴와 한글날 황금 연휴, 단풍 행락철로 이어져 흥행몰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직위는 유료관람객 105만명 등 총 132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목표 달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3,2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솔방울전망대 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에는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양수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권혁열 도의장, 함명준 고성군수와 이병선 속초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김일용 고성군의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을 비롯해 2,000여명이 참석해 10월2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최기영·김천열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양수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권혁열 도의장, 함명준 고성군수와 이병선 속초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김일용 고성군의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명예회장, 김전수 도민회 중

2면에 계속

2023 09 25 ()

江原日報

02

사흘 만에 5만명... 강원의 숲에 흠뻑 취하다 -1면에서 계속

김진태 도지사는 “오늘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은 산림녹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로 그 DNA를 물려받아 첨단산업과 청정자연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강원도의 힘찬 도전을 적극 성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 09 25 ()

02

눈앞에서 펼쳐진 숲의 과거와 미래 ... '푸른지구관' 인기 폭발



◇지난 23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푸른지구관'에서 미디어아트를 보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장식에서 내빈들이 엑스포장에 입장하고 있다.

고성=신세희기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킬러 콘텐츠인 푸른지구관이 최고 인기를 구가하며 엑스포 흥행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산림엑스포 개막 후 토요일인 23일까지 푸른지구관을 찾은 관람객은 6,198명이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엑스포 행사장의 5개 상설전시관 중 가장 적다. 하지만 푸른지구관은 1회 15분 관람에 동시 관람객이 100명으로 제한된다.

시간과 상영 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 관람객 수치 자체는 적지만 대기실에는 관람 대기인원이 줄일 목적이라는 등 현장에서의 인기는 단연 최고다.
푸른지구관에서는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환상적인 대형 실감영상상이 높이 6m, 폭 30m, 길이 40m의 거대한 공간 안에서 벽면과 바닥면까지 4면에서 상영된다. 국내 비상설 전시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스크린으로 아르떼뮤지엄이나 제주 빛의 병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초대형 미디어아트 1회 15분 상영 인원 제한에도 수천명 몰려 휴양치유관 어린이들에 인기... 산림평화관 관람객 최다 눈길
몰입형 미디어아트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간 7,243명이 몰린 휴양치유관도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페이퍼아트로 표현된 숲 공간에서 동화 속 인물로 분장한 연기자의 관람객 소통 퍼포먼스와 함께 캠핑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

기인 데다 캠핑에 대한 관심까지 맞물려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유독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악초 밭에서는 허준으로 분장한 배우가 산약초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 숲속 웅담샘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으로 분장한 배우가 숲의 휴양치유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양방

향 관람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산림평화관은 가장 많은 8,009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 과정과 산림녹화 성공 기록을 생생하게 표현한 전시관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높고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산림과 함께 해 온 역사, 강원지역의 절경을 표현한 문화유산관은 6,751명, 정정인산

물, 목재가공, 임산물바이오, 스마트산림, 산림 레저, 친환경 등 산림 관련 산업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산업교류관은 6,46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이 밖에 아외전시장에서는 평소 접할 수 없는 각종 고성능 임업장비를 전시하고, 대형장비를 이용해 직접 나무를 베고 옮기는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숲속 광장에는 그네·해먹 등 숲속 놀이터와 캠핑장, 도서관 등이 조성돼 있다.
최기영기자



왼쪽부터 37회 강원사진대전 우수상 김일순 작 '엄동설한', 김택기 작 '어머니의 삶'. 아래 사진은 개막식 모습.

기다림으로 포착한 강원의 희로애락

37회 강원사진대전 개막

강원의 사계와 풍경, 사람들의 모습을 순간의 예술로 포착한 사진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37회 강원사진대전 및 초대·추천 작가전이 최근 흥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실에서 개막,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가 주관하는 전시로 총 219점의 강원사진대전 출품작 가운데 최종 수상작으로 뽑힌 44점과 초대·추천 작가의 작품 22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앞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김병철(원주) 작가의 작품 '혼신을 다하여'를 비롯해 추천·초대작가상을 받은 신우항 초대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김작가의 대상작은 머리를 흘날리고 땀 흘리면서 혼신을 다해 타악기 연주를 하는 공연 무대 위 연주자들의 역동적 모습을 포착해 낸 작품이다. 우수작 △김종일 작 '영역다툼' △김일순 작 '엄동설한', 특선작 △최희화 작 '침묵의 주시'

27일까지 흥천문화예술회관

도·도사진협 주최 수상작 전시
공연현장·어머니·해녀 등 소재
"사진 장르 넘어 지역사회 기여"



△김희숙 작 '라이트페인팅' △김택기 작 '어머니의 삶' △김길선 작 '어머니의 손맛'과 △조성호의 '해녀' 등 입상작 36점 등도 전시된다.

개막일 함께 열린 시상식에는 이재한 도예총연합회장, 박광용 도문화예술과장, 최지순 전 도예총회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도내 사진작

가협회시·군지부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장흥군 도사진작가협회장은 "올해 도내 사진계에는 최고의 풍년이 들었다. 도내 사진협회 여러 지부에서 이뤄지는 관광공모전은 사진장르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진으로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한 도예총회장은 "한장의 사진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작품으로 탄생한다"며 "대회를 거듭할수록 품격 높은 수작들로 사진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사진장르를 비롯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원, 강원 예술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도민의 희로애락, 자연의 사계 등 이목을 사로잡는 모습들을 더 많이 포착해 대중 앞에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04

강정호 도의원 “속초 크루즈터미널 복합터미널 전환해야”

동북아항로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

동북아항로 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초 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속초·사진) 도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 크루즈터미널의 최신식 시설을 연 6회 이하 크루즈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 의원은 “속초는 동북아항로 중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자루비노항의 최단 노선”이라며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항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속초 크루즈터미널은 공항과 견줄만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군사항인 동해항처럼 폐쇄항이 아닌 오픈항으로서의 이점이 도가지고 있다”며 “바닷길을 통한 북방항로 교류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경제에 큰 효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 09 24 ()

江原日報**강정호 도의원 “속초크루즈터미널 활성화해 동북아 항로 재개해야”**

크루즈터미널 복합터미널로 사용하면 속초항 활성화 기대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정호(국민의힘.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속초크루즈터미널을 활성화해 동북아 항로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속초크루즈터미널에는 올해 크루즈가 6회 입항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입항 예약이 현재까지 4회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이 지난 4월 민간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정상화 기미가 불투명한 만큼, 속초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전환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민간낙찰자와 협의를 통한 매입,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전략이지만 정상화까지 시간 소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그동안 막혔던 바닷길을 통한 북방항로 교류가 필요하고,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속초항이 명실상부 환동해권 관광·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도와 협의회해 능력있는 선사를 속히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 09 22 ()

MBC 강원영동

강정호 의원,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해야"

김인성

최근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항에 이미 마련돼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선사 유치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정호 의원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정상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6회, 내년에 4회 이용할 계획인 크루즈터미널을 복합 터미널로 활용하는 안을 강원도가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속초가 고속철도 시대를 앞두고 환동해권 물류-관광 중심으로 자리잡으려면 서둘러 선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 09 24 ()

춘천MBC

강원도의회 조례 발의 '전국 꼴찌'

◀ 앵커 ▶

강원도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가

1건도 없는 의원이 10명이나 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 봤더니

강원도의회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회도 있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역구 의원 44명, 비례대표 5명으로

출범한 11대 강원도의회.

1년이 지나 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을

살폈더니, 49명 가운데 10명이

단 1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의 20%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비교해 봤습니다.

대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인 곳은 강원과 경남,

경기도의회 3곳뿐.

나머지 14곳은 1명에서 2명,

많아야 4명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회는

대표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 1명 당 대표 조례 발의 건수도

1.73건으로

전국 평균 2.87건을 한참 밑둡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운데 첫 손으로 꼽히는 조례 발의에서 강원도의회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INT ▶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전혀 대표 발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1년 동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만큼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 기초의회는 더 심각합니다.

강릉시의회는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대표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발의 의원 비율 52%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2위였습니다.

양구군의회도 전체 7명 중 3명이

지금까지 대표 조례 발의가 없어

전국에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발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INT ▶

[강원도의회 의원]

"조례가 몇 건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례를 만들려고 막 베끼고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 문제입니다.

경실련은 조례 실적뿐 아니라

의회 출석 현황과 발언 횟수를 포함한

의원 평가 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ND ▶



2023 09 22 ()

강원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범위 확대”

강원도교육청이 교부금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22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미래 교육 수요와 지역 경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1조 300억 원 규모입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3 09 22 ()

강원도교육청, 3개 학교 신설 계획 확정...도의회 안건 제출

강원도교육청이 춘천 신동초등학교와 춘천 온의유치원, 원주 섬강고등학교 등 3개 학교 신설 계획안을 담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신설 대체 이전되는 춘천 신동초등학교와 춘천 온의유치원은 내년 3월 개교예정이고, 원주 섬강고등학교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江原日報

2023 09 25 ()

10



홍천군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제22회 홍천군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지난 22일 홍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김광수·윤준식 군의원, 이상필 홍천군이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10개 읍·면 199개리 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14

평창 전통 삼굿 명맥 잇기 올해도 풍성

평창방림삼베민속 공개행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평창방림삼베민속 공개행사가 지난 22일 방림체육공원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방림삼베민속보존회(회장 김만복) 회원,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방림삼베민속보존회는 삼농사는 물론 삼굿을 공연으로 만들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매년 공개시연회를 열며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전통삼굿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공개행사에서는 방림초학생들과 보존회 회원들의 농악놀이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평창방림삼베민속 공개행사가 지난 22일 방림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시작으로 짐물붓기, 삼찌기, 길쌈과 정 등 방림삼베민속의 과정을 시연하고 삼찌기과정에서 삼가마에 넣어서 찌내지와 닭고기, 옥수수, 감자를 시식하며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신현태 sht9204@kado.net

2023 09 25 ()

江原日報

12

‘어촌 심언광 선생’ 선양사업 확대 본격화

강릉문화원-본보 협약 후
첫 행사인 ‘문학의 밤’ 성료

【강릉】강릉 출신 조선 중기 문인인 어촌 심언광(1487~1540년) 선생의 선양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어촌 심언광 선생은 16세기 중반 850수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당대 최고의 시인이다. 강릉문화원과 창간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에 ‘어촌 심언광 선양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 확대 및 국민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이후 첫 행사로 ‘제10회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을 지난 21일 강릉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화묵 강릉문화원장, 심광섭 삼척심씨대종회장을 비롯해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영주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지난 21일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제10회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 행사.

박도식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가 심언광 선생의 문학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낭송가들이 어촌 선생의 한시 원시와 번역된 시를 낭송하고, 선생의 작품을 활용한 노래와 공연, 특별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제14회 어촌 심언광 전국학술세미나’는 올 11월10일 개최되며, 심언광·심언수 등 심씨 문장가 문학공원 조성사업, 어촌 심언광 영상제 등 관련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심오섭(강릉) 도의원은 “심

언광 선생은 뛰어난 작품성과 의미가 담긴 한시를 가장 많이 남긴 인물이며, 그의 선양사업을 통해 인문도시 강릉의 문화적 콘텐츠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심언광 선양사업’은 강릉문화원과 심언광 선생의 후손들이 2006년 그의 작품을 모은 ‘어촌집’을 국역으로 첫 번역, 발간하며 시작했다.

심언광 학술세미나는 2007년 처음 개최된 후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최영재기자

2023 09 25 ()

江原日報

16



화천군수배 파크골프대회 제3회 화천군수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3일 산천어파크골프장에서 최문순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해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江原日報

2023 09 25 ()

15

천만송이 꽃길 수놓은 1천여 인파

평창 산소길 걷기행사

백일홍축제장 일원서 열려
기관·단체장·주민 대거 몰려

【평창】2023 평창 산소길 걷기 행사가 지난 22일 평창읍 평창 백일홍축제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평창군, 평창군체육회, 백일홍걷기 축제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도내 산소길 걷기 대행진의 첫 스타트로 마련돼 심재국 군수를 비롯한 심현정 군의장 및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조진호 강원일보 평창지사장, 지형진 평창군체육회장, 김형진 평창백일홍축제위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백일홍축제장의 특설무대를 출발해 백일홍 꽃밭과 제방 마을길 1.5km를 걸으며 백일홍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천만송이 백일홍과 함께한 2023 평창 산소길 걷기가 지난 22일 평창 백일홍축제장에서 열려 이날 참가자들이 만개한 백일홍 꽃길을 걷고 있다.

백일홍 꽃밭과 마을길 걷기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2kg 평창햅쌀이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산소길을 완주한 김경란(여·84·평창읍 종부2리)씨는 “한해도 빠지지 않고 산소길 걷기 행사에 참여했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다”며 “오늘 받은 쌀로 추석 때 식구들에게 맛있는 송편

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소길 걷기행사와 함께 개막한 평창백일홍축제는 이날부터 10월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축제 행사장에는 가족 및 연인이 함께 산책하며 꽃내음을 즐길 수 있도록 약 15만 주의 백일홍 꽃밭이 조성됐다. 또 버스킹공연, 전통민속놀이 체험, 반려견과 함께하는 피크

닉 코스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심재국 평창 군수는 “추석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천만송이 백일홍 꽃밭을 거닐며 추억의 사진을 많이 찍고 즐기길 바란다. 평창 백일홍축제를 가을의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강릉 '소동산 봉수대' 도내 첫 불 밝혔다

포남2동 주민자치위 주관 행사
파수의식·파발퍼포먼스 등 재현
플리마켓·민속놀이 등 체험도



강릉시내에서 바닷가 연안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소동산(所洞山) 봉수대'가 가을밤 도내 최초로 불을 밝혔다. 옛날 군사정세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햇불과 연기를 올리던 봉수 거화 의식인 '소동산 봉수대 거화식'이 최근 포남동 산 142-1번지에 위치한 소동산 봉수대에서 개최됐다.

옛날 군사정세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햇불과 연기를 올리던 봉수 거화 의식인 소동산 봉수대 거화식이 최근 포남동에 위치한 소동산 봉수대에서 개최됐다.

포남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학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기영 시장, 최승순 도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김준래 민주평통 강릉시협의회장,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장,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연야화(晝煙夜火) 즉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올려 의적의 집입 등 위급 상

황을 알리던 옛 봉수대의 거화 의식이 재현됐다. 또 파수의식과 파발퍼포먼스를 비롯해 황화코스모스가 만발한 봉수대 주변에서 플리마켓, 민속놀이, 병장기체험 등이 진행됐다.

소동산 봉수대는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역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있고, 함경도 경흥에서 한양으로 연결되는 제1직봉과 동래에서 한양에 이르는 제2직봉의 간봉으로 운영돼 양양과 강릉, 동해, 삼척, 울진으로 연결됐다.

기단부가 남아있는 터가 보존돼오다가 2008년 9월 22일 포남2동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재현됐다.

김학진 위원장은 "강릉 유일의 봉수대이면서 도내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거화식을 통해 향토문화 보존을 위한 의지를 다지길 바란다"며 "향토 유적지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향후 봉수대가 명소화 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강원도민일보

'EATOF DAY in 강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글로벌 붐업

<동아시아 관광의 날>

8개국 대표단 방문 공동협력 다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붐업이 'EATOF DAY(동아시아 관광의 날) in 강원' 행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23일 고성 세계잼버리장 내 솔밭울전망대 무대에서 'EATOF DAY in 강원' 행사를 성공 개최했다.

행사엔 김진태 도지사와 피터 시몬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회장, 가르시아 세부주지사, 문크바타르 튜브도지사를 비롯한 8개국 EATOF 회원정부 대표단과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 내빈과 해외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EATOF DAY(동아시아 관광의 날) in 강원' 행사가 지난 23일 고성 세계잼버리장 내 솔밭울전망대 무대에서 열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글로벌 붐업에 나섰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이토프데이 in 강원' 행사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20년 전 출범한 EATOF 8개국 회원지방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가르시아 필리핀 세부주지사는 "강

원과 세부는 EATOF를 통해 20년 이상의 우정이 쌓아왔고 앞으로도 더 굳건히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크바타르 몽골 튜브도지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숲이라는 풍부한 자원을 이번 엑스포를 통해 즐길 수 있었다"고 했다.

박지은

2023 09 24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



제21회 화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가 24일 화천체육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체육회장을 비롯한 지역 동호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9 24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홍천군이장연합회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개최



'제22회 홍천군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지난 22일 홍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이상필 홍천군이장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10개 읍·면 199개리 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김광수·용준식 군의원, 전영록 전국이동장연합중앙회 강원자치도지부장, 허필홍 민주당 홍천형성영월평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 09 24 ()

[강원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드론 팀레이싱 대회 개막식

염윤선 기자

태백시에서는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드론 팀레이싱 대회' 개막식이 23일 오후 6시 태백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 태백에서는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드론 팀레이싱 대회' 개막식이 23일 오후 6시 태백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드론 퍼레이드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김혁진 한국무인항공 회장 대회사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과장 축사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이상호 태백시장 환영사 (사진 염윤선 기자)



▲ r개막식 -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축사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축사 (사진 염윤선 기자)



▲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드론 팀레이싱 대회' 개막식 - 사회 (사진 염윤선 기자)

개막식에는 김혁진 한국무인항공회장,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과장,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이한영·문관현 강원도의회 의원,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 축하공연 - 아르페지오 (사진 염윤선 기자)



▲개막식 축하공연 - 춤 스테이지원(이재혁외)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드론 라이트 쇼 '황지연못'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드론 라이트 쇼 (사진 염윤선 기자)



▲ 개막식 - 드론 라이트 쇼 '태봄' (사진 염윤선 기자)

개막식 직후에는 '드론 라이트 쇼'가 300대의 드론이 떠올라 본 대회명과 태백시 마스코트인 '태봄', 태백의 랜드마크인 '황지연못', 등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본 대회는 9월23일 부터 24일까지 태백 고원체육관 및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전시와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 09 24 ()

강원도민일보

제9회 평창군 평생학습축제 어울림 한마당 열려

신현태



▲ 제9회 평창군 평생학습축제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23일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의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다양한 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신현태

제9회 평창군 평생학습축제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23일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과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의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멈추지 않는 배움, 배움으로 하나된 평창’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어린이 발레 등 축하공연과 평창골 민살품이, 신바람고고장구단 등 13팀이 그동안 학습한 발표회를 가졌다.

또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한 와인 소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개발한 간편음식 및 건강음료 시연, 쪽빛 천연염색 등 31개 체험·전시 부스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부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동해시, 횡성·평창군)의 캠페인 부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제9회 평창군 평생학습축제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23일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의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다양한 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신현태

특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반가워 뭉초!’ 직소 퍼즐맞추기 이벤트와 관객 참여형 마임쇼, 스탬프 챌린지 등을 진행,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신현태

sht9204@kado.net

江原日報

2023 09 24 ()

[동정]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엄윤순 농림수
산위 부위원장, 전찬성 도의원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국립춘천박물관 본관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기념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인제다미뷔페에서 열리는 제2회 인제군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인제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에 참석.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25일 오후 2시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복지관 2023 추석 명절 사랑 나눔 행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13



최상기(왼쪽) 인제군 수·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인제다미뷔페에서 열리는 제2회 인제군 지적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09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기념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06

도 '명절 물가·시장 현안' 직접 점검 나선다

27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상향 및 시장 현안을 직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와 점검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속초관광수산물 시장을 찾아 속초시장, 강원상인연합회장 등 관계기관장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수해 당시 방문했던 피해 점포들을 다시 찾아 복구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복구상

황을 다시 살피는 등 피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도는 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시·군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내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구간을 기존 6곳에서 48곳으로 한시적 확대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도 및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도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민과 상인 모두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우

江原日報

‘부실·허위’ 서류 받고 플라이강원에 20억 준 양양군

01

‘부당 지원 의혹’ 의문투성이

사업계획서는 회사 홍보 자료 ... 교부금 신청서 내용도 논란
 군수 최측근 직원의 친인척은 플라이강원 간부로 근무 중
 양양군 해당 공무원 “친인척 정상적 채용...장려금과 무관”

속보=양양군이 예산 20억원의 플라이강원 지원으로 경찰 수사(본부 보 지난 5일자 1면 등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수 최측근 인사의 친인척이 플라이강원 간부로 근무 중 인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김진하 양양군수의 군청 내 최측근 인사로 통하는 A씨의 친인척 B씨가 2019년부터 플라이강원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김 군수가 초선으로 당선된 2014년 민간인 신분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줄곧 함께 일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79명 모집에 3,052명이 응시, 3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플라이강원은 양양을 모기지로 하고 있지만, 항공 업무 특성에 따른 높은 취업장벽 탓에 양양 지역사회는 플라이강원 직원 대부분이 외지인이라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은 올 4월 김진하 군수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간 협약을 맺

고 20억원을 집행했다 뒤이은 사업자의 ‘기업희생’ 신청으로 사실상 관련 예산을 날린 셈이 됐다.

더욱이 군은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증했다고 해명했지만, 본보 확인 결과 서류는 ‘허위’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할 사업계획서는 플라이강원의 통상적인 ‘회사 PPT 홍보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군재정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사업계획서와 산출 근거 검증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사업계획서가 통상적인 회사 홍보자료를 근거로 했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는 아예 허위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본보가 확보한 사업자의 교부금 신청서에 따

르면 ‘운항장려금’명목으로 ‘5월15일~2027년 10월’ 동안 양양-제주, 나리타, 후쿠오카, 베이징, 상하이, 창춘을 운항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은 이미 10여일 전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6월까지 운항을 밝힌 상태였다. 결국 사업자는 ‘허위’의 내용으로 20억원 지급 신청서를 내고, 지자체는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박상진 민주당 속초고성양양지역 위원장은 “2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정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경찰은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양군 간부 A씨는 “친인척은 항공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관련 분야 전문가이며,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20억원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류재일·김준겸기자

江原日報

부지 검토만 1년째... 춘천 대관람차 헛바퀴

10

【춘천】속보=춘천지역 대형 관광시설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대관람차 조성 사업(본부 1월5일자 10면 보도)이 부지 확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춘천 대관람차는 직경 80m, 높이 100여m 규모로 의암호를 조망하는 시설이다. 올해 초 춘천시가 조성 의사를 발표하자 개장 후 연간 60만명을 불러 모은 삼악산호수케이블카에 이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시 최근 삼천동 일원 비릇 복수 후보지 재검토 들어가 전국 지자체 건설 의사 잇따라 밝혀 경쟁력 확보 과제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춘천시가 1년째 대관람차 조성 부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최근 후보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시는 춘천역 앞 캠페이지 일대를 유력 후보지로 놓고 사업 제안 업체와 논의를 이어왔

으나 도시 계획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또 다른 사업 부지를 찾아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원, 상중도 레고랜드 인접지 등이 용도 변경 등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부족한 도심 접근성 탓에 번번이 부적합 판단을 받아 후보

지 범위가 좁아진 상태다. 대관람차 조성 사업은 사업비 350억원이 전액 민간 투자된다. 사업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의암호와 도심 야간 경관을 동시 조망할 수 있는 부지가 최적으로 꼽힌다. 이를 토대로 시는 삼천동 일원을 비롯해 복수의 후보지를 새롭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자체에서 대관람차 건설 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

제로 떠올랐다. 이미 서울시가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인 높이 180m의 서울링을 2027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했고 충남 보령, 전남 여수 등이 대관람차 조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관할 편의, 주변 민원 가능성을 고민하다 보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 제안사에서 여전히 추진 의사를 갖고 있고 시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05

“차례 지낼 곳도 없어” 추석 앞둔 강릉산불 이재민 한숨

4·11경포산불 발생 5개월째 이동식 컨테이너 생활 이어가 “건축비 올라 정부지원 절실”



4·11 산불 이재민인 이 모씨는 추석이 다가오지만 차례상 준비는 커녕 피해 악몽에 시달리며 집이 원상복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앉을 곳이 있어야 추석 차례를 지내지요. 아이들 보고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라 했어요. 조상 산소가서 슬어나한잔 붓고 오려고요.”

추석을 앞둔 24일 오전 11시. 지난 4·11 강릉경포산불 피해자 이 모(72·여·강릉시 안현동)씨는 산 밑에 지어진 이동식 컨테이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산불 발생 이후 5개월째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편 신모(77)씨는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살길이 막막한 이씨는 신경을 너무 써서 인지 최근 잇몸이 붓고 아파 수술을 받았으며 부은 턱을 연신 만졌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가 불을 낸 것도 아닌데 보상을 제대로 못받고 집을 다시 지으려 해도 이자 감당에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제발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이자만이라도 싸게 나라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살다 아들 곁에 살고 싶어도

돈 것을 정리하고 펜션을 지어 17년간 운영한 이씨는 산불난 그날의 악몽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강풍에 불이 사방으로 날아들어 이리다 죽겠다 싶어 몸만 빠져 나와 인근 바다를 향해 무작정 뛰어 나갔다가 그날을 회고했다.

몸은 살아있지만 현실은 더 악몽 같다고 이씨는 맥없이 말했다. “펜션이 곧 직장이고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불이 나면서 모두 잃었어요.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돈으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자재비와 인건비가 너무 올랐고 그동안 대출받은

이자를 내야 하지만 펜션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지요.”

안현동에서 100년 넘게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에 시집과 40여년째 민박과 펜션을 했다는 이웃집 윤모(65·여·강릉시 안현동)씨는 이 씨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더 아픈 사연을 토해냈다.

시댁 본가와 펜션 두 동이 모두 불에 타남편이 몸져 누워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아직도 별채가 안돼 매캐한 냄새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시커먼 숲이 날아들어 컨테이너 문도 잘 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몇몇 집들은 협궤에 땅을 팔고 떠났고 화마 이후 우울증에 걸린 주민들도 여럿 있다고 귀띔했다. 윤씨는 “산불 이재민들이 모이면 대출이자 고민에 기만한다”며 “올해 추석은 못지내도 내년에는 차례상을 올릴 수 있도록 살길을 열어달라”고 울먹였다.

추석 준비로 분주해야 할 경포동 일대는 별채해 쌓아 놓은 노송만큼이나 삶의 무게로 짓눌렸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06

‘못난이’ 상품의 역습... 고물가 속 강원 농산물 마케팅 침범

〈작은 흠집·하자 있는 상품〉

짠테크 소비자 합리적 가격 선호 도내 유통계 중품 할인행사 인기 농협 ‘맛·영양 동일 입소문 효과’

강원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식탁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이 ‘짠테크’(‘짜다’와 ‘테크’의 합성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여기에 ‘못난이’ 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강원지역 농가들도 판

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4일 도내 유통업체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순한 할인판 매로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서 흠집이 있거나 다소 하자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강원지역 주력 상품인 고랭지 배추의 경우 23일 기준 1포기에 상품은 전국 평균 6230원, 중품은 5811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랭지 무는 1개당 상품은 2312원,

중품은 2054원에, 애호박은 1개당 상품 1956원, 중품 1237원에 각각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크기가 크고 모양이 예쁜 상품보다 합리적 가격인 중품을 선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못난이’ 농산물의 경우 도매가격이 급락해 소비자들도 반값 이하에 구매할 수 있어 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앞서 도와 농협 강원본부가 최근 도청 앞에서 개최한 직거래장터에서는 우박을 맞은 정선 임계사과를 ‘맛난이(맛있는 못난이)사과’로 소개해 2박스

에 3만원에 판매하면서 준비한 200박스가 금세 동이났다. 또 더루트컴퍼니의 감자유원이 포파칩 3종 세트를 못난이로 분류된 강릉산 감자를 사용, 고향사랑기부제의 인기 답례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롯데마트가 흥천의 오이 농가 돕기에 나서면서 못난이 오이를 대거 매입해 일반 오이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했다. 농협경제지주도 여름철 하나로마트에서 폭우 피해로 인한 수급 불안 농산물을 대상으로 ‘살맛나는 가격!’ 특별 할

인 행사를 갖고 상추, 깻잎, 시금치, 열무, 열갈이, 부추 등 수급 불안 채소류 6종을 정상이 대비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기도 했다.

농협 강원본부 관계자는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맛과 영양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강원 농산물이 다양한 마케팅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차츰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출하에 어려운 농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판로를 넓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 19

‘수술실 CCTV 영상’ 철저 관리를

-오늘부터 의무화, 비윤리적 행위 막는데 기여해야

오늘(9월 25일)부터 수술실 영상기록 작성과 보관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전신·수면마취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수술실 CCTV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만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을 담은 의료법 38조2는 세간에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데, 2016년 수술 도중 숨진 권대희군은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태였으나 의사는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는 화장을 고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는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도 은폐한 사건이 있었으며, 수술실환자가 방치된 상태에서 생일파티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1년에는 수술을 담당의사가 아닌 일반직원과 영업사원이 대리하는 등 갖가지 일탈 행위가 속속 고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키웠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영상기록이 도입된 만큼 조기 정착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강원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오늘 시행에 앞서 설비 등 필요

준비를 했겠으나, 영상기록 보관 기일과 열람에 조건이 붙는 만큼 환자가 관련 규정과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하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촬영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는 30일 이내 보관기간 연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 등에 한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엔 거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부분은 환자 영상기록입니다. 영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성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할 경우, 임의 촬영할 경우에 대해 징역형과 수천만원대 벌금에 처하겠다는 조항을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적 영상기록 관리를 통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고 의료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5 ()

/ 19

AI 반도체산업 주도권 잡아야

-도·원주시·연대캠퍼스 협약, 생태계 조성 기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AI(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 코리아는 최근 업무협약식을 갖고 AI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 등 원주 지역 기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을 모색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AI 산업 기반 조성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내년 정원 50명의 AI 반도체 학부를 개설하고 인텔이 가진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력양성과 산학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약 13만㎡ 규모의 부지 개발에 나섭니다. 내년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으로, 캠퍼스 내 AI 설루션 및 AI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치해 전문 인력 육성 체계를 마련합니다. 도와시는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 기관은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AI·데이터 기업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히 의료 AI 반도체

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헬스와 의료 빅데이터에 강점을 가진 강원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AI는 이미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물론,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의료, 자율주행 등 산업과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입니다.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AI의 핵심 두뇌에 해당합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적 첨단 기업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인 퀄컴, 인텔, 엔비디아는 물론, SKT,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첨단산업 환경 속에서 맺어진 지·산·학 업무협약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일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행정과 대학, 기업이 힘을 모아 강원도에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인력양성과 기업 유치에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명실상부한 지역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9 25 ()

/ 19

물가 치솟는데 쌀값만 하락, 근본 대책 시급하다

전국 벼 수매가의 잦대로 활용되는 철원군의 벼 수매 가격이 3년 만에 2,000원대 이하로 책정됐다. 쌀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원농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 직후 올해 벼 수매가를 2022년 1kg당 2,040원보다 190원 낮은 1,850원으로 결정했다. 철원지역 벼 수매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조합 측은 누적적자 심화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쌀 생산농가들은 영농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수매가 인하에 반대했던 이사들은 조합 측이 직권으로 수매가를 내린 것에 항의하며 6명의 이사 중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철원농협 내부 조직인 청년부 역시 21일 오전 철원농협 미곡처리장을 찾아 조합 측의 수매가 인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쌀값만 하락세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류, 비료가격 등 농사 생산 비용이 크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쌀 생산 비용과 모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쌀값만 내리는 상황에 본격적인 벼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한목

소리로 정부가 쌀값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정부가 손써야 할 정도로 농민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지속되는 쌀값 하락은 잘못된 정책과 운영에 기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례 행사처럼 매년 이맘때면 발생하는 쌀값 하락을 막을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쌀값 하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쌀 가격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쌀 소비 운동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육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귀중한 식량인 쌀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쌀 산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적정 가격을 정부와 농협이 함께 찾아줘야 한다. 지역 농협과 농민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쌀값 결정은 생산자인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인 RPC가 하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쌀값이 폭등하는 건 농가들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2016년처럼 쌀값이 개 사료 값보다 못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江原日報

2023 09 25 ()

/ 19

국회, 말끝마다 민생 외치지만 무슨 일 하고 있나

국회는 말끝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 이어가던 단식을 지난 23일 중단하며 회복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향후 그의 정치적 행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내분이 폭발하며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고, 당장 26일에는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친이재명계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야당

의 내분이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200일 앞두고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3%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로는 총선에서 초반빙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최근 2주간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4→33→33%였고 더불어민주당도 34→32→33%로 양쪽 다 제자리걸음 중이다.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

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튜브와 차량유지비, 명절휴가비, 야근식대, 업무용 택시비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으며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뿐만 아니라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리

면서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영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경제·민생·개혁 입법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은 온갖 수를 써서 통과시킨다. 비례 위성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내홍

국민의힘, 내년 총선 앞두고 벌써 표 계산

민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역풍 맞아

정당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쓰는 데 천재적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국회가 스스로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부끄러움을 알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다. 정치인 인간적 경륜과 사회적 경험을 두루 갖춘 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선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